

“좋은 월급에 만족하니 나태해져요”



도이치오페라극장 벗어나 독립선언한 테너 강요셉
2003년부터 11년간 한 극장서 활동…“안정이 위기”
‘2016 오스트리아 음악극장 시상식’ 서 남우주연상
다음 달 19일 오페라 ‘파우스트의 겁벌’ 내한 공연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인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에서 “중신 성악가”는 따는 당시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탄탄대로의 길을 박차고 나왔다.

2003년부터 자부심을 키우던 도이치오페라극장을 벗어나 2013년 독립을 선언했다. 테너 강요셉(38·사진)이다.

“좋은 극장에서 좋은 월급을 받고 만족하면서 지내다보니, 저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렸고요.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1년 동안 한 극장에만 있다 보니 영역을 넓히기도 힘들었죠.”

올타리 밖으로 나오자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2014년 그라츠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의 아르놀트 역으로 최근 ‘2016 오스트리아 음악극장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기록한 쾌거다. 특히 이 역은 테너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인 하이C가 20번 이상 나오는 등 난도가 높다. 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테너의 캐스팅이 어려워 자주 공연하기 힘든 작품 중 하나다.

“나행히 제 목소리에 맞는 배역이었어요. 고음과 드라마틱한 것을 함께 보여줄 수 있으니 관객들의 박수도 많이 받았죠. 고음이 많이 나오는 ‘세비야의 이발사’만 450번만 해서 테크닉적으로 도움이 됐죠.”

강요셉은 유연한 미성과 가창이 특징이다. “성악가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연기력도 풍부해야 합니다.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게 하는데 중요하지요.”

오는 8월 19일 국내에 내한공연한다. 공

연기획사 아트앤아티스트 주최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여는 오페라 콘서트란 테인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에 출연한다.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파우스트의 겁벌”은 지난해 5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극장이 제작한 버전이다.

당시 강요셉이 파우스트를 맡고,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45·윤태현)이 ‘베피스토펠레’를 맡아 화제가 됐다. 유럽의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서 한국인이 동시에 주역을 맡은 것이다.

“저 역시 생소한 작품이었는데 음악적인 완성도가 뛰어났죠. 특히 파우스트는 고음역대와 함께 저음역대가 있어 드라마틱했어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간 아무래도 자신의 장기인 고음에 치중하다보니 중저음에서 드라마틱하고 따뜻한 소리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

지만 파우스트를 맡고 난 이후 이 부분도 보완됐다.

“파우스트 이후 ‘리플레토’에 출연했는데 높은 음역대도 따뜻하게 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전 이 작품에 출연했을 때보다 반응도 더 뜨거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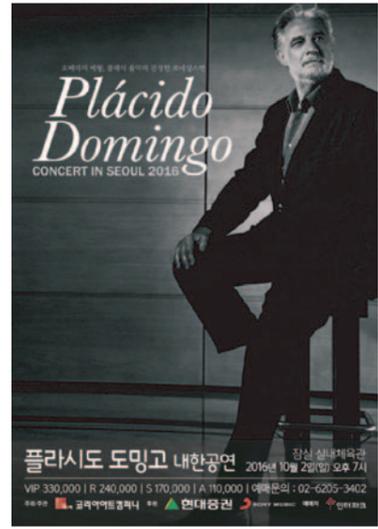
애처가인 그는 성악을 전공한 부인에게 칭찬을 듣기 힘든데 “이 ‘리플레토’로 칭찬을 받았다”며 싱글벙글이다.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화 ‘파파로티’ (감독 윤종찬·2012)에서 성악가를 연기한 이재훈의 목소리가 그의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배우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일부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개의치 않았다.

“가요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해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도 좋아하고 생각이 탄탄해 있는 걸 조심해요. 이런 작업을 통해 성악이 관심을 받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최근 한 출판사에 뽑은 ‘세계 최고의 테너 40인’에 한국인 테너 중에서는 이용훈과 함께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그의 주가는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 책으로도 출간, 강요셉이 이날 들고 왔는데 플라시도 도밍고로부터 요나스 카우프만 등 세대를 막론하고 내로라하는 테너들이 속해 있었다.

/김민근 기자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한국서 고별 콘서트 연다
일흔다섯 고령… 세계 투어 힘들어
10월 잠실실내체육관 내한 공연

20세기 3대 테너로 통하는 플라시도 도밍고(75)가 한국서 고별 콘서트를 연다.

공연주최사 코리아아트컴퍼니에 따르면 도밍고는 10월2일 오후 7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마지막 내한공연을 펼친다. 노령에 따른 결정이다. 노래로 세계 투어를 하는 것 역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전언도 있다.

1991년 처음 내한공연한 이후 5년 한국을 찾았다. 이번 무대는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1957년 바리톤 가수로 데뷔한 도밍고는 1961년 미국에서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를 맡은 뒤 약 50년 간 테너로 활동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 런던 로열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에서 활약했다. 지휘자와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했다.

팝가수 존 덴버와 함께 성악과 팝이 만난 곡인 ‘퍼haps 러브(Perhaps Love)’로 크로스오버 성악의 문을 열기도 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 대중에게 친숙한 성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 이름을 각인시킨 계기는 ‘소리 테너’ 콘서트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전야제에서 3대 테너의 또 다른 이름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한 무대다. 이 공연의 실황음반은 세계에서 1200만장이 팔려나갔다. 클래식 음반 중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당시 공연 실황은 세계 15억명에게 생중계됐다. 2013년 기준 144개 배역과 3687회의 공연(레코딩 포함), 9번의 그래미상 수상, 3번의 라틴 그램미상 수상, 케네디 센터 명예인, 프랑스 레종 훈장, 영국 기사 작위, 미국 자유의 메달 수훈 등의 기록을 썼다.

도밍고는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시 바리톤으로 돌아가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새 앨범 ‘엔카토 델 마메디테라네이언 송스’(소니뮤직)를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격정적인 아리아를 선사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하늘에서 내려다 본 풍경

드론 촬영 ‘곽풍영 개인전’

전라북도 산하를 드론으로 촬영해 온 곽풍영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31일까지 사진공간 눈에서 열린다.

전시작품들은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면에서 도출된 독특한 사진들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동화 같은 풍경을 담았다.

그는 “드론을 통해 바라본 전북의 산하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며 “작품은 새하얗게 눈 덮인 겨울의 풍광을 주로 전시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의 소소한 풍경과 사람들이 숨 쉬고 공존하는 모습을 작품화 하였다.”고 말했다.

저널사진작가인 곽풍영은 호서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수료했다.

2016 하늘을 날다, 사진공간 눈/전주 2015 한지 도출된 독특한 사진들로 구성된다/

2015 색으로 세월을 덧칠하다,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에서 개인전을 갖은 바 있는 그는 사진과 영상을 콜라보레이션 하는 등 다양한 시도의 사진 창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관람문의 사진공간 눈 063-902-2882. /정해은 기자

전주전통문화관, 27일 ‘어얼水! 놀러오쇼’ 공연

전주전통문화관의 ‘문화가 있는날-어얼水! 놀러오쇼’ 공연이 27일 오후 7시 한벽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한 여름밤의 꿈’ 공연에는 Yonak&Tam(이윤아&김태)이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무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비롯해 ‘하루만, 홀로 플라야, 사랑가, isn't she lovely, 산체스, 민요의 향연, 아름다운 세상, 타’ 등 현대적 감성의 국악선율을 들려준다.

소리꾼 이윤아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판소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m.net 방송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7에 출연해 ‘쑈대머리’를 구성지게 불러 국악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킨 바 있다.

육보원(가야금), 최두리(아쟁), 박찬모(대금,소금), 최선호(피리,태평소), 조진용(해금), 김진안(타악), 정태영(타악), 금현



이윤아

육(타악), 김보미(성악)로 구성된 국악양상블 탐은 음악에 심취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그룹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다.

공연문의의 280-7009 /정해은 기자

민속국악원, ‘달리는 국악무대’ 지리산·덕유산국립공원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지지역인 지리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달리는 국악무대, 한 여름 밤의 국악무대’공연을 마련한다.

공연은 오는 29~31일은 지리산 달궁 자동차 야영장에서, 8월2일~3일은 덕유산 덕유대 자동차 야영장에서 오후8시에 각각 열린다.

달리는 국악무대는 가족여행객들과 공연 소외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물놀이, 남도민요, 가야금 병창, 기악합주, 판소리, 민속무용 등 종합예술로 구성된 악가부가 국립민속국악원의 이동형 무대차량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들이 놀이판을 벌이는 흥겨운 놀이마당도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http://namwon.gugak.go.kr>) 063-620-2332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p>▷쥐띠</p> <p>46년생: 타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쉽게 이룰 수 있다. 60년생: 상대방의 모진 말속에 해답이 있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니 상황을 둘러보고 판단하여 행동하라.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포기하지 마라.</p>	<p>▷소띠</p> <p>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61년생: 편법을 사용하면 주변에 알려지게 되니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라.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다.</p>	<p>▷호랑이띠</p> <p>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운전은 삼가라.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고 일회성으로 끝내는것이 좋겠다. 8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p>	<p>▷토끼띠</p> <p>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좋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슬수가 따르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마음쓰지 마라.</p>
<p>▷용띠</p> <p>52년생: 이미 자신이 알기 전에 정해져 있던 것이니 미련을 버려라. 64년생: 취미와 화합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아재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된다.</p>	<p>▷뱀띠</p> <p>53년생: 타인과의 화해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을 치우치면 일을 그리치게 되니 매사를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지나간 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89년생: 상대를 믿지 마라.</p>	<p>▷말띠</p> <p>5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6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 손을 내밀어보라. 78년생: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운.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p>	<p>▷양띠</p> <p>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원숭이띠</p> <p>56년생: 손이라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하니 밤침은 금물이다. 80년생: 좋은 일하고 빨 늦는걸.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p>	<p>▷닭띠</p> <p>57년생: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리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개띠</p> <p>46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나 좋은 결실을 맺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다.</p>	<p>▷돼지띠</p> <p>47년생: 가족들의 불화가 생기는 때. 59년생: 받으려고 하지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운이다. 71년생: 여성은 밤늦게 다니면 출산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